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20년.
우리나라 최초의 옴부즈만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우리사회에 국민행복 증진의
새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국민권익 07+08 2014 vol.39

국민 권익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지방세 w@tax 인터넷 지방세 종합 서비스
장학금신청 국가유공자 복지부정신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아이 돌봄 상담
헛갈리는 세금 문의 상담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복잡한 서류상담
기초생활지원 원산지표시 장애인등록
고충민원 부패·공익침해 신고 행정심판 성범죄자 우편고지 수산물안전

110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복잡한 서류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평일) 오전 8시 ~ 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국민결앓 110 정부민원 110

110 하나의 번호만 기억하시면, 정부 업무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4 07+08 vol.39
발행일 2014년 8월 8일(격월간, 비매품)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이성보
편집인 박형준 주소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전화 02,360,2761 팩스 02,360,3520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이팝 02,514,7567 www.eepop.co.kr

CONTENTS



- **테마기획**
 - 04 **테마 스토리** _ 대한민국 옴부즈만 20주년, 세계 옴부즈만과 함께하다
 - 08 **테마 포커스** _ 세계 옴부즈만을 이끄는 파수꾼에게 듣는다
 - 12 **테마 인포** _ 한 눈에 보는 옴부즈만 제도 이모저모
- **희망전하기**
 - 14 **국민권의 이야기** _ 자양분
 - 18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_ 국민 모두를 위한 행복한 복지 서비스, 우리가 지킨다!
 - 20 **소통의 창** _ 늘어나는 1인 가구 문제, 국민과 함께 해법 찾는다
 - 22 **국민행복제안센터** _ 헛갈리는 세금신고, 국민의 아이디어로 더욱 더 편리하게!
- **권익더하기**
 - 24 **국민권익이 간다** _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행정심판이 간다!
 - 28 **글로벌 ACRC** _ 12개국 언어로 소통하는 글로벌 민원 시스템, 권익위가 만든다
 - 30 **국민권의 Q&A** _ 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 32 **110 행복레시피** _ 동지를 잃은 새에게 꿈과 희망을
- **행복나누기**
 - 34 **타박타박 힐링여행** _ 하늘과 땅이 맞닿은 양양, 나는 지금 그곳에 서 있다
 - 38 **감성충전소** _ 아름다운 자연과 생생한 체험이 있는 농어촌으로 떠나자!
 - 40 **스포츠 인사이드** _ 아시아인의 축제, 화제의 빅매치 미리보기
 - 42 **건강 다이어리** _ 발에 혹독한 계절, 한여름 맨발 잔혹사
 - 44 **청렴 오디세이** _ 청렴한 리더십으로 일궈낸 '싱가포르의 기적'
 - 46 **꼭 알아두세요!** _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기상정보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 48 **뉴스&피플** _ 국내 첫 청렴교육 전문기관 '청렴연수원' 숙소동 '청백사' 준공 등
 - 50 **행복우체통** _ 독자의견&퀴즈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 대한민국 옴부즈만 20주년, 세계 옴부즈만과 함께하다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 도입 20주년을 기념해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서울에 모였다.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가 열린 것. 또 이에 앞서 옴부즈만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 이사회와 세계 옴부즈만 협회 아시아지역 총회가 열려 의미를 더했다.

세계의 옴부즈만이 대한민국에 모이는 대축제

세계 옴부즈만 관계자들의 축제,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가 '옴부즈만과 국민의 삶, 그 역동적 관계'라는 주제로 지난 7월 서울에서 개최됐다. 미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12개국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 도입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인'을 의미하는데,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고충을 듣고 조사하는 한편, 정부의 부패와 잘못된 정책 운용을 감시하는 제도로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됐

다.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옴부즈만 제도가 시행됐는데, 우리나라에 옴부즈만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1994년 종합 민원처리기관으로 현재 권익위의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시점부터다. 권익위는 옴부즈만 제도 시행 2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를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AOA(Asian Ombudsman Association,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 이사회와 IOI(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세계 옴부즈만 협회) 아시아지역 총회의 서울 개최를 유치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를 준비함으로써 우리나라 옴부즈만 활동과



- 1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관계자가 모인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 현장
- 23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에는 이성보 위원장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1
2
3
4

성과를 홍보하고, 옴부즈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하루 전인 7월 1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AOA 이사회와 IOI 아시아지역 총회가 열렸다. AOA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등 18개 아시아 국가, 30개 옴부즈만 기관이 회원으로 있는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로, 현재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이 재무이사를 맡고 있다. 뒤이어 오후에는 IOI 아시아지역 총회가 열렸다. IOI는 전세계 90개국 190개 옴부즈만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아시아지역에는 한국과 파키스탄, 태국 등 10개국

16개 기관이 투표권을 보유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AOA 이사회와 IOI 아시아지역 총회에서는 각각 이사국과 회원기관이 참석해 각종 현안과 의제를 활발히 논의했으며, 특히 AOA 이사회는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AOA 회원가입을 승인했다. 참가자들은 회의 후 국립중앙박물관과 삼청각을 방문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회원국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민국 옴부즈만의 성과와 선진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7월 2일과 3일 양일간 성대하게 치러졌다. 컨퍼런스 첫날인 2일 개회식에서 이성보 위원장은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시작해 20주년을 맞은 우리 권익위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라며 “옴부즈만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국민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해 역동적으로 변화·발전해 가야하며, 이번 행사가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제도와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권익위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시민 권익 보호, 민주주의 증진, 반부패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권익위의 활동을 치하하고 “국민권익을 지키는 첨병이 옴부즈만인 만큼, 오늘날 민주시민사회의 역동성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12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과 세계은행(World Bank) 관련 전문가 등 총 25명이 자국의 옴부즈만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발표자로 나섰다. 우리나라에서는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과 김영란 전 위원장이 직접 연사로 참가했다.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대응한 옴부즈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



5

로 열린 개막 세션에서 김영란 전 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서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대응한 한국 옴부즈만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회변화 과정을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동일시해 권리 주장보다는 국가에 순응하는 특성이 있던 산업화 시기(1960~70년대)와 인권과 시민의식이 성장하던 민주화 시기(1980~90년대), 권익보호 요구가 커진 선진화 시기(2000년대 이후)로 구분했으며, “이 선진화 시기에 한국 옴부즈만은 권익구제와 행정통제, 공공갈등 해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과 정부 간 소통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의심받지 않으려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 이어져
개막 세션을 시작으로 총 6개의 주제를 다룬 세션이 이틀에 걸쳐 차례차례 진행됐다. 제1세션은 ‘옴부즈만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치 창출과 사회발전’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제2세션은 ‘IT기술의 발전과 옴부즈만의 효율성 개선’, 제3세션은 ‘다양한 옴부즈만 간 유기적·효율적 역할분담 방안과 사례’, 제4세션은 ‘공공갈등 확대와 옴부즈만의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 제5세션은 ‘사회적 불공정을 제거하는 옴부즈만 역할’, 제6세션은 ‘옴부즈만 간 다양한 협력을 통한 옴부즈만 기능 강화’를 주제로 이뤄졌다. 특히 제4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이성보 위원장은 ‘집단갈등에 대한 옴부즈만의 대응 역량 강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집단민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 신청이 없어도 주



6

- 1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 도입 2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234 옴부즈만 기관장들의 사례 발표에 관심있는 참가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 56 컨퍼런스에 앞서 AOA 이사회와 IOI 아시아지역 총회가 열려 세계 옴부즈만 활동의 방향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요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전담부서를 설치해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관을 팀제로 운영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며, 조정전담기구로서 권익위가 신뢰를 쌓아 집단민원에 대한 관리와 예방을 위한 지휘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국의 다양한 사례를 발표하는 발표자는 물론, 200여 명에 달하는 국내외 참가자들 역시 각 발표내용에 주목하며 의견제시와 활발한 질의응답에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대표 옴부즈만인 권익위의 위상과 활동을 널리 알리는 한편,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들과 선진 사례를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권익위는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세계 옴부즈만 주요 인사 인터뷰 세계 옴부즈만을 이끄는 파수꾼에게 듣는다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는 세계적 추세

귄터 크로이터(Günther Kräuter)
IOI(세계 옴부즈만 협회) 사무총장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는 전 세계 각국의 주요 옴부즈만 기관장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명실상부한 옴부즈만 축제의 자리로 마련됐다. 세계의 옴부즈만 제도를 이끌고 있는 주요 인사들에게서 옴부즈만 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보자.



각 나라가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옴부즈만은 정부와 국민의 접점으로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권력의 횡포, 잘못된 행정과 불합리한 결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더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제도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전 세계의 옴부즈만 기관 간 협력이 이뤄진다면 이러한 옴부즈만 제도의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물론 각 나라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옴부즈만 기관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옴부즈만 제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적 차원의 옴부즈만 기관 간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IOI의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

IOI는 옴부즈만 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첫째는 교육훈련기회 제공, 둘째 관심주제에 관한 연

구, 셋째 지역단위 프로젝트 지원 등이다. IOI는 2013년 4월 방콕에서 태국옴부즈만, AOA(아시아 옴부즈만 협회)와 함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2013년 9월에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와 협력해 옴부즈만 기관을 위한 조사관 훈련코스를 개설했다. 최근 세계은행 및 열린정부파트너십과 협력해 공동후원을 시작했다. 또 비정부기구 및 대학들과 협력해 옴부즈만 제도 연구를 진행해 두 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현재 아시아 지역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관들이 서로의 경험을 배우고 국제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IOI는 지금까지 15개 지역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 페루의 옴부즈만 기관 직원을 위한 이더닝 플랫폼, 몰도바의 수감자들을 위한 정보보장 캠페인, 파키스탄의 대중 인식제고 캠페인 등 전 세계적으로 수 차례의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를 지원했다.

앞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IOI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현재 많은 프로젝트들이 기획 중에 있다. 지난 5년간 시행한 프로

젝트의 성공을 기반으로 교육훈련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역을 위한 직접적인 지역 보조금 지원, 아시아지역 연구프로젝트 추진, IOI 6개 지역 옴부즈만 기관 비교연구 수행 등이다. 교육훈련과 역량강화, 보조금 등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회원기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대중들이 옴부즈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도록 돕고, 기관들이 상호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한국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지 20주년을 맞았다.

한국 옴부즈만 제도가 걸어온 길을 평가한다면?

IOI는 한국 옴부즈만이 정부 시스템 향상과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지난 20년간 권익위는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였으며, 권익위의 활동은 전 세계 옴부즈만 커뮤니티에 중요한 의미를 더해주었다. 특히 권익위에서 2011년에 실시한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 기관 비교연구"는 국제적으로 옴부즈만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향후 더 긴밀한 협력과 성과를 기대한다.



재소자의 권리보장은 민주사회의 바로미터

하워드 세이퍼스(Howard Sapers)
캐나다 교정 옴부즈만

특수 분야 옴부즈만 중 하나인

교정 옴부즈만은 어떤 일을 하는가?

재소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적인 대우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교정 옴부즈만의 역할은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권이 교정행정 안에서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방법원으로부터 2년 이상의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재소자들이 제기한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교정 옴부즈만 직원들은 57개의 연방 교정시설, 직원, 재소자들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관들은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하여 재소자들과 직원들을 만나고 있다.

교정 옴부즈만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생소하다.

세계적으로 관련 제도가 많은지?

교도소는 종종 보안과 기밀을 이유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당하고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교정환경이나 관행을 감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관행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 우리 교정 옴부즈만의 업무 중 하나라

고 할 수 있다. 교정감시제도는 특히 영국연방국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차원의 인권기구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문방지를 위한 UN소위원회, 국제적십자사, 고문방지연합 등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구급시설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다.

재소자들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교정 옴부즈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교정 옴부즈만은 6가지 중점분야가 있다. 보건서비스에 대한 권리, 수감 중 사망예방, 수감환경, 원주민 교정, 안전하고 시의적절한 사회복귀 및 연방 교정시설의 여성 재소자 문제이다. 교도소 안의 현상들은 민주적인 사회의 활력과 가치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정시설 내에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폭력, 수감 중 사망, 교도소 내 정신질환자 관리와 인구밀도 및 폭력문제, 각종 프로그램 참여권리 등은 공익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결국 사회로 복귀할 것이기 때문에 취약하기 쉬운 교정시설 내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



옴부즈만의 궁극적인 힘, 독립성, 공정성, 신뢰성

앙드레 마린(Andre Marin)
캐나다 온타리오주 옴부즈만

매년 2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던데,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우리 옴부즈만이 실행하는 조사의 대부분은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다.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온타리오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에게 실시하는 질병선별검사에 대한 조사였다. 아이가 태어나면 미리 앞으로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두 가지 질병만 테스트하고 있었다. 이것은 출생 시에 이미 막을 수 있었던 질병으로 매년 50명의 아이들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조사 발표 이후 검사 숫자가 증가해 현재는 29개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백 명의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옴부즈만은 모든 기관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조사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온타리오 법에 따라 우리는 500개 이상의 지방정부부처, 기업, 기관, 법정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옴부즈만 법에 규정된 범위 밖에 온타리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부문들이 있다. 바로 병원, 지방자치단체, 대학, 교육청, 아동보호시스템 등이다. 모든 옴부즈만들이

1975년부터 이런 단체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촉구해 왔다. 나는 2005년 옴부즈만에 임명된 이후 이들 단체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을 매년 연례보고서에 수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400여 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처음으로 우리 옴부즈만의 위임을 확대해 이들 단체의 일부를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우리의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성공을 거둔 것이다.

서구에 비해 아시아의 옴부즈만 시스템은

훨씬 적은 권한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옴부즈만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옴부즈만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법 구조 안에서 움직여야 하지만, 우리는 먼저 200년 전에 만들어진 스웨덴 의회의 모델에서 공통의 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옴부즈만의 힘은 독립성, 공정성, 신뢰성, 조사과정의 비밀준수에 있다. 따라서 나는 모든 옴부즈만들에게 그들의 노력과 가치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할 것을 권한다. 우리 옴부즈만 사무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많은 옴부즈만들이 조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 눈에 보는 옴부즈만 제도 이모저모

200년 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옴부즈만 제도는 국민의 고충 해결과 행정기관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에 앞장서는 전 세계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국민의 권익과 행복을 지키는 첨병인 옴부즈만 제도의 이모저모를 알아보자.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대리인(Agent)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옴부즈만의 주요 특징



숫자로 보는 옴부즈만 제도

1809

세계 최초의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으로, 군사기밀과 성문제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접수되는 모든 민원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78



세계 옴부즈만 협회(IOI)는 1978년 설립되어 전 세계에 옴부즈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다.

30



아시아지역 옴부즈만 협회인 AOA는 1996년 설립되어 현재 18개국 30개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국민권익위원장)는 재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



우리나라는 1994년 행정부형 옴부즈만 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08년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되어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90



IOI는 전 세계 90여 개국 160개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국민권익위원장)는 이사로 활동 중이다.
• IOI 아시아지역은 10개국, 16개 기관이 활동 중



농업인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

자양분

정희 씨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미숫가루를 킷다. 컵을 휘휘 저으며 책상으로 돌아와 가방에서 밀폐용기를 꺼냈다. 잘게 썬 양배추다. 출근길에 산 플레인 요구르트를 부어 나무젓가락으로 뒤적였다. 미숫가루와 양배추 샐러드가 오늘 정희 씨의 점심이다.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는 그녀는 이렇게 한 끼 때우기 일쑤다.

하루하루가 고달픈 워킹맘의 육아고민

전에는 점심 무렵이면 문에 '식사 중'이라는 메모를 붙여놓고 잠깐이라도 집에 갔다 왔다. 베이비시터에게 맡겨놓은 막내를 보기 위해서였다. 집까지는 뛰어가면 10분 정도 걸렸다. 세 살 막내를 무릎에 앉히고 점심을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다시 매달리는 아이를 떼어놓고 가게로 달렸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 했지만 진작에 탈락했고 2년쯤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때까지 베이비시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아이를 친정에 맡겼다. 첫째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문을 열고 허브다이어트 가게를 하는 유미가 들어왔다.



“언니, 올해도 포도 좀 신청할까 해서. 세 박스만 예약해줘.”

“응. 남편한테 말해 둘게.”

정희 씨 남편은 김천에서 포도 농장을 한다. 직장을 다니다 그만 둔 후로 정희 씨와 함께 부동산중개인을 했지만 둘이 매달리기엔 별이가 시원치 않았다. 농사를 지으시던 시아버지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누군가 내려가 나무들을 돌봐야 했다.

“조금 있으면 승훈이 학교에서 올 시간이네.”

유미가 벽걸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정희 씨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승훈이는 학교가 끝나면 사무실에 들러 가방을 두고 학원 가방으로 바꿔 들고 간다. 씩씩한 유미는 아이와 마주칠 때마다 틈틈이 빵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다. 그런 마음 씩씩이가 고마워서 가끔 허브다이어트 시식회라도 하면 정희 씨는 발 벗고 도와준다.

“막내는 잘 크자? 이제 엄마 안 찾는대?”

네 살 박이 막내 얘기가 나오자 절로 한숨이 나왔다.

“뭘 한숨까지? 내년엔 어린이집 당첨되면 다시 데려오면 되잖아.”

“아니, 그것도 힘들게 생겼어.”

유미 씨의 입술이 동그랗게 말렸다. 왜? 묻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면 원래 당첨 1순위라서 턱 하니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게 적용 안 된대.”

“언니네 맞벌이 맞잖아?”

“맞벌이 틀림없지. 하지만 그걸 증명할 길이 없단다.”

정희 씨가 기막힌 건 그 때문이었다. 분명히 맞벌이가 맞지만 그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 남편이 문제였다.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모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땔 수 없는 서류들이었다. 공여지책으로 '농지원부'와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어린이집에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에도 문의했지만 같은 대답만 돌아왔다.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높은 문턱, 깊어가는 고민

유미는 자기 사무실처럼 믹스커피를 두 잔을 타서 한 잔을 정희 씨에게 내밀었다.

“언니, 그냥 사립 어린이집에 맡기면 안 돼? 원비가 많이 차이나?”

정희 씨는 뜨거운 커피가 달갑지 않았다. 모락모락 김을 피워 올리는 종이컵을 그냥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아직 미혼인 유미가 어린이집 비용에 대해서 알 리 없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우유 값 2만 원 정도만 내면 다른 비용은 들지 않는다. 먹거리도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 그것뿐 아니다. 교사의 처우와 교육의 질은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정희 씨 생각이다. 너도 나도 온 가족을 동원해 어린이집 추첨에 줄을 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형부는 뭐래? 거기서 농사 계속 지을 거래?”

유미의 말에 그녀는 미지근해진 커피를 입으로 가져갔다.

안 그래도 그 문제로 어젯밤 남편과 다투다. 힘들지 않느냐고, 몸 생각도 하면서 일하라고 말하려 전화를 했던 것인데 그만 화를 내고 말았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만 않았어도 베이비시터를 그만두게 하지 않아도 됐다면. 그랬더라면 막내를 친정 엄마 손에 맡기지 않아도 됐다. 당뇨가 있는 친정 엄마는 힘에 부치는지 자주 앓았다. 정희 씨의 푸념에도 남편은 묵묵부답이었다. 작은 제조업체 경리과에서 일하던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건 작년 겨울이었다. 구조조정에서 밀려난 것이다. 언젠가 닥칠 일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해왔던 일인데 막상 닥치니 억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게다가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일에도 농업인이라고 무시를 당한 것만 같아서 화가 치밀었다. 한참 만에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당신 속상한 건 알아. 하지만 나무도, 아이도, 하루라도 손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당신도 알잖아. 자양분이 좋아야 나무가...”

“당신은 나무의 자양분만 알고 아이를 키우는 자양분은 생각안 해?”

그 말에 또 화를 내고 말았다. 남편의 속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닌데... 속상해서 눈물이 났다.



아이들을 키울 희망의 자양분을 만들다

“언니, 그러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볼 곳이 있어.”

이번엔 정희 씨의 입술이 동그랗게 말렸다. “응?”

유미 씨가 말한 곳은 국민권익위원회였다. 정희 씨는 점심시간에 사무실 문을 잠시 닫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다. 마음속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조사관에게 답답했던 점을 전부 털어놓았다.

“말씀하신대로 부당한 면이 있네요. 맞벌이 부부가 틀림없으시다면 당연히 어린이집 1순위 자격이 있으세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지요.”

조사관은 잘 알아보고 처리하겠다고면서 정희 씨를 다독였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보, 포도나무 잘 커?”

남편의 목소리는 덤덤했다.

“응. 여기 흙이 좋아서 잘 커. 애들도 잘 크지?”

“응, 어쩌면 우리 막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지 몰라.”

“갑자기 자리가 비었대?”

“아니, 자양분이 좋아서.”

“자양분?”

“그런 게 있어.”

말로 해보니 그럴 듯 했다.

좋은 제도는 아이를 키우는 좋은 자양분이 될 테니까.

정희 씨는 기분 좋게 사무실 문을 열었다.



Case Information

국민권익위원회는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때 우선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제한되던 것을 농업인의 경우는 실제 경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 공적서류로 인정범위를 확대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현황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국민 모두를 위한 행복한 복지 서비스, 우리가 지킨다!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인 복지 서비스는 그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하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악용한 부정수급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단순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복지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설치된 것이다.



국민 모두를 위한 복지예산이 헛되게 사용되는 일 없도록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90조원에서 2014년 106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전체 정부 지출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점점 넓어지고, 촘촘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 수준은 아직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복지예산이 부정수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누수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2012년 17개 부처의 복지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 50여 개 사업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되었고, 그 규모도 약 1,3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문제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없어서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은밀하게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부정수급이 사라지지 않고 그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어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도 늘고 있지만, 부정수급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네 말이지요. 따라서 부정수급의 문제를 널리 알려져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부정수급 문제도 근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동훈 복지부정신고센터장은 ‘복지부정신고센터의 존재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부정수급이 없는 청렴한 복지를 꿈꾸는 이들

신고센터에서 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이동현 조사관은 ‘신고인들이 가장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신분보호 문제와 객관적인 근거 제출이라고 말한다. “상담 과정에서 신분보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안심하시죠. 하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할 때에는 조사를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조사 대상의 대부분이 민간시설이나 단체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현장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드러내 놓고 조사를 할 수도 없거든요. 특히 신고내용에 포함된 복지 서비스 수급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많은 터라,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많고요.”

복지부정신고센터는 부정수급을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쉽게 상담을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범정부 통합 신고센터다. 지금까

지 각급 기관별로 설치돼 있던 부정수급 상담창구를 한 곳으로 모아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고, 우편, 팩스, 방문접수 등은 물론 정부민원 대표전화인 110과 부정수급 전용 홈페이지인 청렴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경험은 풍부한 각 기관의 조사관들이 모여 있어 전문성도 높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상담 결과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관이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이해당사자와 관련자료 등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이첩한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제도 및 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담과 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박주아 조사반장은 ‘좋은 의도로 시작된 복지 서비스가 악용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며 환하게 웃는다. “신고센터가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적발하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 신고센터의 존재를 더 많이 알림으로써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신고센터가 있다면 함부로 부정수급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국민들에게 부정수급 신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부정수급이 없는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 복지부정신고센터 직원들. 이들의 밝은 미소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이들의 자부심이 가득 느껴진다.



과천 정부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팀장 및 팀원들



권익위·대통합위, 다음(Daum) 공동 개최 전자공공토론

늘어나는 1인 가구 문제, 국민과 함께 해법 찾는다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창, 전자공공토론이 지난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한 달간 열렸다.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 포털 다음(Daum)이 공동 개최한 이번 전자공공토론은 미디어 다음(media.daum.net)과 범정부 정책소통 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우리사회의 변화 현상을 진단하고 창의적인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다.



1인 가구에 대한 뜨거운 관심 모여

'1인 가구'를 주제로 한 이번 전자공공토론은 세 가지 소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첫째는 우리나라 1인 가구 현황과 형성원인, 둘째는 가족·결혼제도가 관련된 사회적 지원체계 변화 필요성, 셋째는 고령 단독가구를 위한 정부·지역사회의 지원방안 등이다.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 비중을 반영하듯 많은 네티즌들이 토론과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온라인 상에서 펼쳐진 자유토론에는 모두 2,116건의 참여글이 올라왔으며, 조회수도 19만 6,224회에 달해 '1인 가구' 현상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실시된 설문조사에도 942명이 응답했으며, 이중 1인 가구 응답자는 17.1%로 나타났다.

토론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청년층 1인 가구 증가'에 대해 대다수가 고용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낮은 소득, 높은 물가 등 경제적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는 글에는 250여 건의 답글이 달릴 정도로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 현재의 소득수준에서 주택가격, 물가, 사교육비, 노후대비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설문조사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원인에 대해 30대 이하 청년층의 44.2%가 '고용불안·경제여건 악화'를 꼽아 현실적인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문고 토론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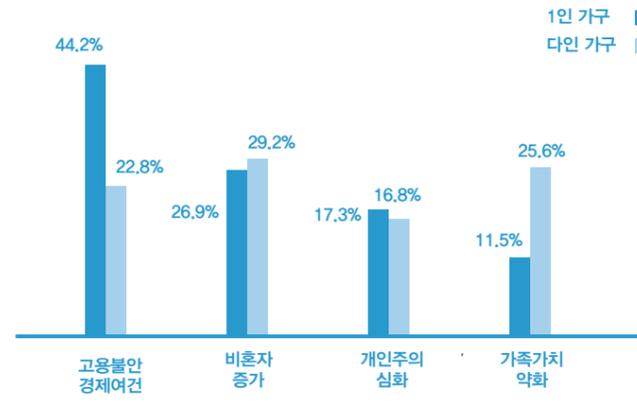
다음 아고라

더욱 좋은 정책 마련을 위한 밑거름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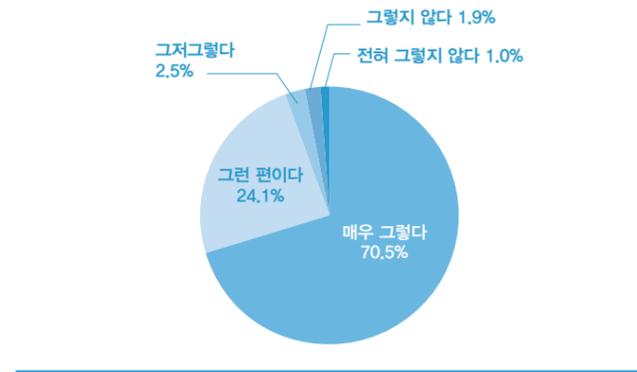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94.6%가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1인 가구 증가현상이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다인 가구보다는 1인 가구에서 사회적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주거 안전 대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대로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임대주택 등의 우선권 부여 등 주택지원(83.3%)'을, 40~50대 청년층 1인 가구는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74.7%)'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

30대 이하 청년층이 생각하는 1인 가구 증가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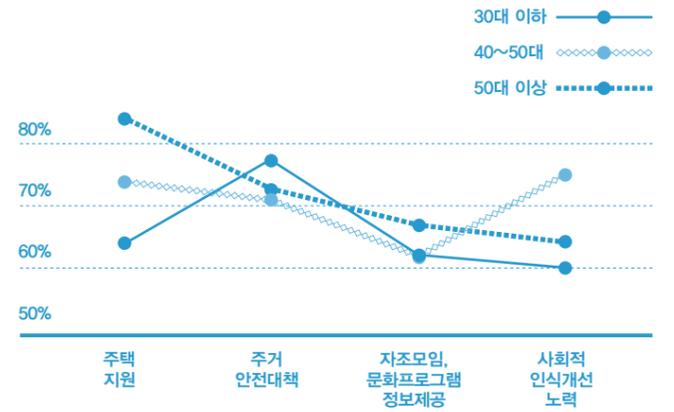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 필요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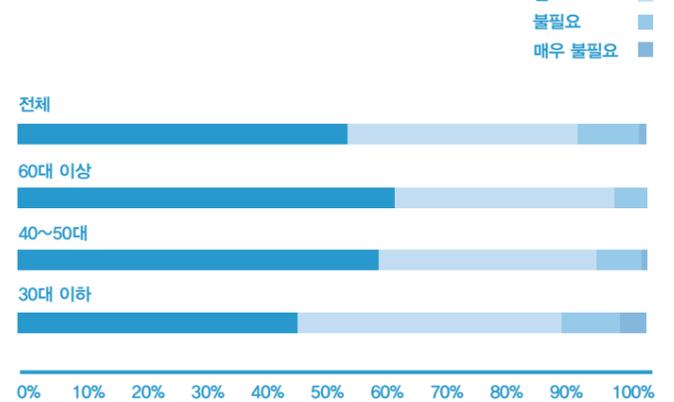
다. 여기서 이혼 등의 비율이 높은 40~50대 청년층 1인 가구가 사회적 편견을 더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에 대한 요구는 청년층 1인 가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1인 가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가족정책은 아직도 4인 가구에 맞춰져 있고 사회적 인식성숙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5%가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54.6%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전자공공토론 결과는 정책 반영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로 이어질 계획이다. 주요 의견과 시사점 등을 토대로 추가 토론이 필요한

1인 가구 지원 정책별 '매우필요' 응답 비율



인식개선 노력 필요성



지 여부를 판단해 국민대통합위원회 내의 '세대 공감 토론'으로 연계하고, 최종 토론 결과와 정책개선 사항을 종합·정리해 관계부처에 제공한다. 또 권익위는 전자공공토론 결과를 국민신문고와 포털 다음에 공개하고, 토론 결과로 도출된 정책이 반영되고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시각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상을 파악해 정책으로 연결하는 전자공공토론, 국민 스스로가 정책에 참여하는 이러한 의미 있는 활동이 국민 행복을 향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기능 개선

햇갈리는 세금신고, 국민의 아이디어로 더욱 더 편리하게!

‘국민행복제안센터’는 국민 스스로가 아이디어와 개선안을 제안하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이다. 혼자만의 아이디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실현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국민의 희망과 행복을 키운 사례를 만나보자.



복잡하고 햇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어휴, 뭘 잘못했길래 계속 ‘0’으로 뜨지?”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모니터 앞에서 끙끙거리던 K씨는 짜증이 확 치솟았다. 열심히 입력한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0’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었다. 안 그래도 생전 처음 해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만만치 않게 복잡해서 고생하던 차에 문제가 하나 생기니 머리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만 같았다. 똑같은 내용을 다시 입력하기를 여러 번, 혹시나 잘못된 게 있을까봐 처음부터 다시 신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여전히 ‘0’은 바뀌지 않았다.

“아! 나 도저히 못해!” K씨는 결국 세무서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마음 같아서는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꼭 눌러 참고 사정을 차근차근 얘기했다.

“아, 그건 ‘0’으로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에 미달되면 공제금액이 없답니다.”

전화를 끊은 K씨는 힘이 쭉 빠졌다. 이렇게 간단한 걸 고민하느라 시간 낭비를 하다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도 났다. ‘간단한 설명 하나만 덧붙여 줬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안내 문구를 삽입해 납세편의 제고

현행 세법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미만일 경우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때에도 25%에 미달될 경우 데이터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란이 ‘0’으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이렇게 숫자가 변하지 않으니 사용자가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착각해 일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안인은 간단한 안내 문구 하나로 납세자와 행정기관 모두가 편리해지는 행복제안을 센터에 제출했고, 국세청은 제안 내용을 검토한 즉시 홈택스 신고 시스템에 전격 반영해 제안 신청 후 3일 만에 실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5월 26일부터 신용카드 계산기 팝업 화면에 ‘입력한 금액의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에 미달하면 공제금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는 줄였다. 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의료비 항목에도 의료비 계산기 팝업 화면에 ‘입력한 금액의 합계가 총 급여액의 3%에 미달하면 공제금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 편의성을 보다 더 향상시켰다.

권익 더하기

국민권익이 간다 | 글로벌 ACRC | 국민권익 Q&A | 110 행복레시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순회구술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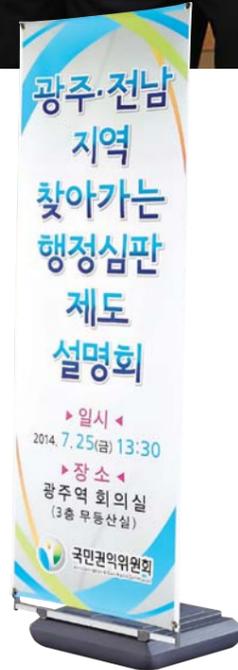
2014. 7. 24.(목) 16:00~ 광주광역시청 세미나실



행정심판 순회구술청취 및 설명회를 위해 권익위 직원들이 광주광역시청에 방문했다

광주·전남지역 행정심판 순회구술청취 및 설명회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행정심판이 간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행정심판이 국민의 곁으로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선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서울까지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역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하고, 지리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행정심판 관련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도와 주요 재결례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고 있는 것.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광주·전남지역 순회구술청취와 설명회 현장을 만나보자.



행정심판 순회구술청취를 진행하는 홍성철 부위원장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정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역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 순회구술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행정심판

법은 우리 생활과 공동체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자 사회적 약속이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법은 너무나도 멀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이 때문에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처분을 받아도 '법률에 의한 것'이라는 중압감에 눌러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정심위)는 이런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이 행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처분을 받는 것, 불법영업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처분을 받는 것, 각종 인허가 취소, 정보공개 거부 처분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행정기관의 처분업무는 모두 행정심판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 해에 중앙행정심위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은 전국적으로 약 2만 5천여 건 정도예요.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서면심리와 청구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가 진행되는데, 지방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경우 일부러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참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요. 그래서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정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역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 순회구술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수 주무관은 “지난 6월에 대전에서 처음으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여는 등 중앙행정심위는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 구술청취 내용에 대해 위원들과 논의하고 있는 홍성철 부위원장



2



3



4

234 광주·전남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도 및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지역 청구인을 직접 만나 진술을 듣는 순회구술청취

지역순회 구술청취는 정부 3.0 구현을 위해 지방 청구인들에게 맞춤형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광주·전남지역 행정심판 순회구술청취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 홍성철 행정심판부위원장과 행정심판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광주·전남지역 순회구술청취에서는 광주·전남지역 행정심판 청구인들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구인, 들어오십시오.” 안내에 따라 들어오는 청구인의 온 몸에 가득한 긴장감도 잠시, 꼼꼼히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위원장의 질문에서 서서히 긴장을 풀고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사실 구술청취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재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심판에서 재결이 내려지려면 행정심판 위원들의 정족수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 구술청취는 서류 상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부분들을 청구인이 직접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 위원들이 좀더 명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위원장은 쟁점이 될 만한 부분, 좀더 확실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하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지, 법률 제도 상의 맹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날 실시된 총 11건의 구술청취는 한 건의 보훈관련 행정심판과 10건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이어졌다. 음주운전, 교통법규위반 벌점 등에 따른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행정심판은 전체 행정심판 건수 중 약 75%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편이라고. 하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17~19% 정도다. “교통법규는 서로간의 약속인데, 이걸 무시하면 많은 사람이 불편하게 되지 않습니까. 면허가 취소되니 일에도 지장이 있고, 불편한 일도 많지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음주운전은 더 이상 안 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의 자상한 충고가 덧붙여지자 청구인들도 ‘죄송하다’며 진심 어린 대답을 한다. 구술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청구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말끔히 걷힌 후련한 표정이 떠오른다.

지역 공무원들을 위한 행정심판 제도 설명회도 열려

이튿날은 광주·전남·전북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심판 제도 설명회’가 열렸다. 행정심판이 행정기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만큼, 지방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행정심판 제도를 잘 알

“행정심판 제도 교육이 행정기관에는 꼭 필요하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꾸준하게 공무원들의 상담 요청을 받거든요. 그때마다 이런 설명회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렸으면 해요.”

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리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행정심판 관련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각 지방을 찾아가 설명회를 여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이것이 타당한 법인가, 실효성 있는 법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지켜질 수 있는 법과 조례를 만들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잘 알고 그에 맞춰 잘 실행해야 합니

다.” 황해봉 행정심판국장은 ‘공무원들이 법을 잘 알고 적용해야 우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할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인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행정심판 제도 설명회’는 지방행정공무원들에게 인기가 높다. 다양한 행정심판 사례를 파악해 미리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고, 최근 늘어나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찾아가는 행정심판 제도 설명회’에서는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런 교육이 행정기관에는 꼭 필요하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꾸준하게 공무원들의 상담 요청을 받거든요. 그때마다 이런 행정심판 설명회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렸으면 해요.” 설명회에 참석한 전남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 강동신 사무관의 말이다.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작은 노력, 현장에서 찾아가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또 현장 공무원들의 가려운 부분을 짚어주는 행정심판의 노력이 앞으로 청렴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기반이 될 것으로 믿는다.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처리 시스템

12개국 언어로 소통하는 글로벌 민원 시스템, 권익위가 만든다

국내 거주 외국인 145만 명 시대, 이제 거리에서 외국인과의 마주치는 것은 낯설지 않은 일이 됐다. 국제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관광객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체류하거나 아예 정착해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 권익위는 우리 말과 생활이 서툰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국민신문고에 총 12개 언어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145만명 시대, 민원도 글로벌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얼마나 될까? 한국관광공사와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1,217만 6,000명에 달한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44만 5,000여명으로 광주광역시 주민 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숫자만큼 이들이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전혀 다른 땅에서 도움을 청할 곳 없어 고생하고 있는 외국

ACRC e-peopl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www.epeople.go.kr

중국어 Chinese, 베트남어 Vietnamese, 몽골어 Mongol, 일본어 Japanese, 한국어 Korean, 인도네시아어 Indonesian, 우즈베키스탄어 Uzbek, 네팔어 Nepali, 캄보디아어 Khmer, 태국어 Thai, 방글라데시어 Bengali, 스리랑카어 Sri Lanka, 영어 English, Petition

국민신문고

인들이 적지 않은 것. 이에 권익위는 기존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외국어 서비스를 추가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민원을 듣고 있다. 지난 2008년 6월 외국어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들도 자국어보다 자유롭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2 주한 외국인 고충민원 상담현장
3 국민신문고 메인화면



3

외국어 민원처리 시스템은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언어에 따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국어로 편리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외국어로 접수된 민원은 해당 외국어 전문가의 검수, 수정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되어 다른 민원처럼 내용별로 분류된다. 고충민원은 권익위에서, 일반민원은 해당기관에서 바로 접수해 처리하는 것. 처리 결과도 민원인의 모국어로 다시 번역해 회신해준다. 민원 해결에 가장 문제가 되는 언어장벽을 허물고, 범국가 차원의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더욱 쉽게, 더욱 편리하게 진화하는 시스템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처리 시스템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돕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08년 영어, 일어, 중국어 세 개 언어로 시작된 이래 차례로 언어를 추가해 현재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등 12개 언어로 확대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어 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총 2,246건으로 월 평균 62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어 민원 신청 건수는 2012년 804건에서 2013년 1,230건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권익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외국어 민원처리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12개 언어가 모두 표기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배포하는 것은 물론, 주한 외국 대사관과 외국 인근로지원센터, 주민센터 등 주한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외국어 민원처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상담 제도인 '맞춤형 이동신문고'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권익위 조사관이 직접 외국인센터 등을 방문해서 법률이나 각종 제도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고충과 애로를 해결하는 것이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우리 교민도 전 세계에서 체류하고 있는 국제화 시대, 앞으로 권익위는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맞춤형 글로벌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한 눈에 보는 국민권익 주요 사례 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1 무자격자에게 시술 시킨 피부 성형외과 의사 자격정지 처분



Case
피부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피하지방을 제거하는 카복시 시술을 받는 환자가 점점 늘어나자 피를 냈다. 간호사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피부관리사나 간호학원생에게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을 시키기로 하고 환자에게는 간호사라고 소개한 것. 이러한 무자격자에게 시술을 시킨 피부 성형외과 의사인 A씨에 대한 공익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

Solution
공익신고자의 주장에 따라 권익위는 무자격자의 카복시 시술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현장 조사를 거친 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해당 피부 성형외과 무자격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고, 해당 피부 성형외과는 결국 자격정지 1개월 15일과 업무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2 시·청각 장애인 등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Case
얼마 전 병으로 시력을 잃은 D씨. 책 읽기를 좋아하는 그는 꼭 읽고 싶은 책이 있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찾았다. 음성 파일은 없었지만, 대체자료 제작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에 바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언제 제작될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말에 D씨는 또 한번 실망했다.

Solution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기간은 최소 2주에서 길게는 3달 이상 소요되고, 대체자료도 다양하지 못해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많았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제도개선 방안은 대체자료 제작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해 주고, 제작 계획을 공개하도록 해서 중복제작을 없애는 한편 장애인정보누리터 이용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가까이에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국민 권익의 수호자로 함께하고 있다. 권익위에 접수된 행정심판, 고충민원, 부패·공익신고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자.

3 민간업체 응급구조사 경력 불인정은 잘못



Case
공항 소방구조대에서 3년 이상 2급 응급구조사로 일해 온 K씨는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응시자격 인정여부 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K씨가 근무한 소방구조대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민간이송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2급 응급구조사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K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Solution
중앙행심위는 K씨가 2급 응급구조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해 왔고, 공항 소방구조대는 항공법에 따라 응급구조사 및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A씨의 실제업무가 응급구조사 업무에 해당하는지의 검토 없이 획일적으로 A씨가 속한 회사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민간이송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1급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4 표준지와 용적률 차이 크면 개별공시지가 정정해야



Case
김포한강지구 수변상업용지에 상가 부지를 분양받은 L씨는 세금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분양받은 상가의 토지 용적률이 200%인데도 김포시가 용적률이 600%인 표준지를 그대로 적용하여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는 바람에 취득세 등 총 3,100여만 원의 세금이 나왔던 것. L씨는 납득할 수 없는 개별공시지가 산출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Solution
김포한강지구 수변상업용지는 차별화된 상업공간 조성을 위해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위치별로 용적률을 달리하여 계획하면서 2013년까지 표준지는 용적률이 600%인 토지 하나밖에 정해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표준지가 주변 지역을 대표하지 못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김포시에 개별공시지가 정정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동지를 잃은 새에게 꿈과 희망을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는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하루 평균 8,600건에 달하는 상담전화는 이어지는 바쁜 와중에도 110 상담사들은 민원인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있다.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상담사의 상담 내용을 소개한다.

“수고하십니다. 혹시 전세 임대차 피해 상담도 가능할까요?”

국민의 모든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부처와 각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았지만 해결이 안 되거나 어느 기관으로 문의해야 할지 모르는 민원인들의 문의 전화가 오기 때문이지요.

“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때로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민원인의 걱정을 털어드리고 싶어 조심스럽게 여쭙봤습니다. 망설이시던 민원인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사가기로 한 날이 열흘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집주인과 사이가 나빠져서...”

민원인은 답답한 사정을 차분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보증금이 더 저렴한 방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현재 집 주인이 이사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미리 주겠다고 하며 빨리 나가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전 재산인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잔금을 다 주면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은 막무가내로 빨리 나가라면서 이사가지 않아도 바닥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영 답답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민원인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고스란히 수화기로 전해졌습니다.

“선생님, 전세 임대차 피해는 법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법률상담을 알려드릴 테니 한번 받아보세요.”

“아이구, 지금 이사갈 비용도 없는데 법률상담을 어떻게 받아요.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이 있어요. 받아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바로 접수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꼭 좀 부탁할게요!”

며칠 후 문제가 잘 해결됐는지 걱정되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너무 고맙워요! 그때 상담을 잘 받았고, 상담받은 그대로 처리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확인전화까지 해주다니 더 고맙네!”

비록 큰 도움을 드리지 못했지만, 민원인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저절로 힘이 났습니다. 이미 망가진 새의 동지를 다시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지를 잃은 새가 동지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행복 나누기

타파타파 힐링여행 | 감성충전소 | 스포츠 인사이트 | 건강 다이어리 | 청렴 오디세이 | 꼭 읽어주세요!





동해안 걷기 여행

하늘과 땅이 맞닿은 양양, 나는 지금 그곳에 서 있다

두 눈 크게 뜨고 보기 아까워 살포시 실눈으로 바다를 담아본다. 파도는 끝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밀려왔다가 잡으려면 밀려가버린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파도의 술래잡기 놀이에 어린아이의 속은 타들어간다. 이내 아이는 침범거리며 바다로 뛰어 든다. 비로소 파도와 친구가 된다. 머리 꼭대기에 있던 태양도 바다와 친구가 되고 싶는지 입을 맞춘다. 태양과 한 몸이 된 바다는 새색시처럼 얼굴을 붉힌다.

유랑의 끝을 찾기 힘든 곳, 양양

백두대간에서 발원한 물이 남대천에 모여 동해로 향한다. 회귀본능이 있는 연어처럼 바다로 흘러간 물은 역류하는 법이 없다. 다만 구름과 비가 되어 양양땅 곳곳을 촉촉이 적셔준다. 양양은 내륙과 해안 모두 절경이다.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을 내려서면 제 아무리 성능 좋은 차도 몇 번씩 '부릉~부릉~'하며 기합을 넣어야 하는 오색령도 양양에 있다. 특 쏘는 물맛과 오묘한 색깔의 오색약수로 목을 축이고 물길을 따라 내려오면 내륙과 작





죽도 전망대에서 바라본 동해



여름성수기에도 비교적 한적한 죽도해변



TIP 여행정보

코스안내 양양 해변 따라 걷는 길은 죽도 ~ 광진해변 ~ 갯마을해변 ~ 남애항 ~ 지경해변 ~ 지경공원으로 이어진다. 총거리 7km가 조금 넘는다.

찾아가는 길 서울기점 영동고속도로와 동해 고속도로를 통해 3시간 내외 도착. 차는 죽도 주차장에 주차한 뒤 지경공원에서 택시를 타고 돌아오면 된다.

숙박 남애항 주변에는 민박형 펜션이 많다. 가족민박(033-673-3077)은 콘도형으로 취사가 가능하다. 하조대해변에 있는 골든베이(033-672-7090)는 호텔급 시설이다. 별미 꼭져구를 넣고 오랜 시간 끓여낸 꼭져구탕이 별미다. 현지에서는 두거리탕으로 알려져 있다. 밀가루가 들어있어 걸쭉한 게 특징이다. 월용식당(033-671-3049)이 원조집으로 알려져 있다.

문의 양양군청 관광안내(033-670-2397)



별하는 남대천에 닿는다. 이름만 들어도 낭만적인 동해안 7번 국도는 '낭만로드'라는 별명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바위가 솟구치는 힘을 참지 못한 채 솟아올랐다. 그 가운데 애국가 소나무로 알려진 하조대 소나무가 망망대해를 바라다보며 오가는 뱃사람들의 길벗이 되어 준다. 하조대해수욕장을 지나면 작은 해변들이 줄지어 이어진다. 기사문·잔교·북분·동산해변 등, 13km구간에 13개의 해변이 있으니 1km당 한 개꼴이다.

단순함에서 삶의 의미를 찾다

하조대에서 남애항까지 단숨에 달려도 되지만 죽도정에서 잠시 쉬어 보자. 파도가 깎아 만든 각양각색의 바위가 예술 조각품을 능가한다. 예술가의 창의적인 손길로도 기술자의 섬세한 손놀림으로도 흉내 낼 수 없는 기기묘묘한 바위들을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바위를 따라 철재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바위가 들쭉날쭉 길을 막아섰다가 다시 길을 내어준다. 일사천리 큰길을 내지 않고 섬의 굴곡을 따라 몸을 더듬으며 걷는 기분이다. 섬은 예민하다. 여행자의 낯선 발걸음에 간지럼을 타서인지 바람에 소나무가 춤추고 파도가 넘실거린다.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다. 주고받을 때 서로에 대해 더욱 애뜻해지듯 섬을 걷는 발걸음도 걷기와 멈춤을 반복한다. 그럴수록 섬은 은밀한 부분까지 내어 보이며 순종한다.

죽도는 섬 둘레가 1km 남짓 되는 작은 섬이다. 사시사철 송죽(松竹)

이 울창하다 하여 죽도라 한다. 이곳에서 대나무는 찾아보기 어렵고 소나무만 무성하게 자라 섬을 지키고 있다. 가파른 계단 몇 개를 오르면 정상에 죽도정이 보인다. 1965년 마을의 재력가들이 모여 세운 것인데 송림과 바다가 조화를 이뤄 멋스럽다. 정자에서 서서 시나브로 다가오는 어선들을 하나 둘 세어보는 것도 여유로운 해안걷기여행의 묘미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단순함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자 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발 아래 갯바위에서는 손맛에 굶주린 강태공들이 무심한 바다를 향해 낚시를 드리우고 있다. 어쩌면 그들은 고기를 낚기보다 바다와 얼굴을 맞대고 파도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을까.

만선기를 매단 개선장군을 영접하라

발걸음이 갯마을해변으로 향한다. 고운 모래에 맑은 물, 그야말로 그림이다. 물이 생각보다 얕다. 아이들 걱정은 잠시 묻어둬도 좋겠다. 꼬마아이가 발가락을 꼬지락거리더니 조개를 잡았다며 엄마를 부리 나케 찾는다. 녀석에게는 신기한 일이지만 이곳에서는 일상적인 일이다. 30분만 투자해도 일큰한 조개라면은 충분히 끓여먹겠다. 한바탕 물속에 들어가서 인어공주, 인어왕자가 되어도 좋겠지만 다음 행선지인 남애항으로 향한다.

남애항은 영화 <고래시냥>의 촬영지로 강릉 심곡항, 삼척 초곡항과 더불어 강원도 3대 미항으로 손꼽힌다. 마을 남쪽의 바다라는 뜻에서

'남해'라고 불리다 '남애'로 변했다고 전한다. 항구 방파제가 시작하는 지점에 '양야산'이라는 야트막한 봉우리가 있고 방파제를 따라 걸어 가면 양야도가 있다. 이어 양양의 특산품이 송이버섯을 닮은 송이등대가 항구를 지키고 있는데 이 모든 풍경이 절대미항을 만드는 맛깔스러운 재료다.

지금까지의 바다는 인간의 손으로 다듬을 수 없는 자연의 것이었으나 남애항은 인간의 손때가 곳곳에 묻어있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그럼에도 아옹다옹 다투거나 땀 땀새에 저린 곳이 아니다. 분향을 찾아오는 순례자처럼 평안하게 귀향하는 어선의 모습, 찬란하게 부서지는 햇살을 머리에 받으며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의 모습, 나른한 오후 고살길을 걸으며 길고양이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 이처럼 평안한 삶은 거창하거나 고귀한 학문에서 또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지는 게 아닌가 보다. 단순한 진리에서 찾을 수 있으니 말이다. 항구 뒤편 마을길은 허벅지에 힘이 곤잘 들어갈 만큼 경사지다. 배가 들어오면 아낙네들이 지아비를 마중 나오던 길이다. 오늘도 무사히, 간절한 기도가 통했을까. 어선은 만선기를 펴리며 개선장군처럼 항구에 들어선다. 갈매기가 나팔수가 되어 '기록기록' 노래한다. 대학생 이들의 학비와 지치고 힘든 뱃일도 개선장군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다. 만선의 기쁨을 함께 나눌 남애항 사람들이 힘찬 뱃고동을 울리는 그를 향해 환영의 영접인사를 보낸다.





추억의 먹거리와 물놀이를 함께 즐기는 양평 보릿고개마을

농어촌 여름 휴가지

아름다운 자연과 생생한 체험이 있는 농어촌으로 떠나자!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되면 부모들의 고민은 시작된다. 여름방학 동안 오래오래 남을 멋진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조금 색다르게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농어촌 체험마을로 떠나보자. 어른들에겐 어릴 적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도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농어촌 문화와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시골의 넉넉한 인심은 덩이다.

어른과 아이 모두 행복한 농촌체험여행

농촌으로 여름휴가를 떠날 결심이 섰다면 이제는 장소를 고를 차례. 전국 방방곡곡에 다양한 형태의 체험마을들이 있는데, 체험마을 정보를 한 눈에 편리하게 보려면 대한민국 농촌체험관광 웰존포털(www.welchon.com)이나 농촌전통테마마을(www.go2vil.org)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전국 농어촌 체험마을에 대한 정보와 마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부담스럽다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산, 들, 강, 바다로 떠나는 농촌 여름휴가지 30선'을 참고하자.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엄선했다. 산, 들, 강, 바다의 네 가지 테마 30개 마을로 구성된 추천 마을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체험마을협의회와 추천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됐기에 믿을 만하다.

우리 농촌의 생생한 생활을 몸으로 배운다

'산이 있는 체험마을'로 선정된 경기도 가평군 '아홉마지기마을'은 가평 8경 중 제3경인 용추구곡(용추계곡)이 있는 마을로 숲이 아름답



왼쪽부터 영동 비단강숲마을, 태안 뱃가리마을, 가평 아홉마지기마을

다. 숲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자연 식생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다.

강원도 횡성군 '고라테이마을'에서는 화전민의 삶을 체험해볼 수 있다. 고라테이는 '골짜기'라는 뜻의 강원도 토속어. 이 마을은 화전민이 일군 것으로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산골마을이다. 움막 체험, 숨겨진 장뇌삼을 찾는 '십마니 체험'이 이색적이다. 섬강의 발원지인 봉명폭포까지 가는 계곡 트레킹도 할 수 있다.

'들이 있는 체험마을'로 꼽힌 양평 '보릿고개마을'은 추억의 먹거리와 물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콩보리밥, 호박밥, 썩개떡, 보리개떡 등 이제는 추억의 먹거리가 된 건강한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다. 농작물 수확을 비롯해 맨손 송어잡기, 뗏목타기 등 물놀이도 즐길 수 있다. 보은의 '하얀민들레마을'은 대청호 최상류에 위치하여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400년된 초가집과 한옥 등 전통가옥과 돌담길이 잘 어우러진 테다 집집마다 감나무 고목이 있어 고즈넉한 시골의 정취가 빼어나다. 초가집을 배경으로 뗏돌, 절구, 다듬이 등 전기가 없던 과거에 쓰던 생활도구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만끽하는 색다른 즐거움

'강이 있는 체험마을'인 영동 '비단강숲마을'은 봉화산 아래로 비단강이 흐르는 금강이 만들어낸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자리하고 있다. 다슬기, 쏘가리 등이 서식할 만큼 청정자연을 간직하고 있어 맑은 물속에서 보물찾기 하듯 올갱이도 잡을 수 있다. 부부끼리 또는 자녀와 함께 2인용 자전거로 비단강 둑을 따라 물 흐르듯 달리며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익산의 '산들강울포마을'은 금강을 인접하고 있어 자전거를 타고 금강을 따라 달려볼 수 있다. 눈에 물을 대는 농수로에서 우렁이 등을 잡으

며 수생태계를 관찰하는 자연학습도 체험할 수 있다. 물놀이장도 마련되어 있으니 아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휴가객에게는 더없이 좋다.

'바다가 있는 체험마을'로 선정된 태안 '뱃가리마을'은 아름다운 해안과 솔숲길의 경치가 멋진 곳이다.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구멍바위'를 통해 보는 일몰이 특히 아름답고 갯벌, 염전 등 다양한 자연체험을 즐길 수 있어 소박하지만 특별한 휴가의 추억을 만들기에 제격이다. 청산도 '느림보마을'은 슬로시티답게 여유로운 바닷가 마을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옛 폐교를 리모델링한 '느린섬 여행학교'가 있어 전통 어획방식인 휘리체험과 청산도 탕 만들기, 조개껍질을 활용한 조개 공예를 체험할 수 있다. 농촌 체험마을 30곳은 가족당 평균 하루 6만~10만원 정도면 숙박이 가능하고, 1인당 평균 1만 7,000원이면 두가지 체험에 식사 한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다.



TIP 농어촌 정보 사이트

농촌전통테마마을(www.go2vil.org)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 (www.go2vil.org) 사이트는 독특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양한 농촌마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곳이다.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촌전통테마마을의 상세한 정보와 행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농촌체험관광 웰존포털(www.welchon.com)
농산어촌 체험여행의 편의를 위해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웰존포털(www.welchon.com) 사이트는 개성 넘치는 체험마을의 정보와 전문가의 추천여행정보까지 만날 수 있다.

글_전영희(스포츠동아 기자) 사진_연합포토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인의 축제, 화제의 빅매치 미리보기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9월 19일 개막한다. 10월 4일 막을 내리는 이번 대회에는 45개국에서 1만 3000여 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는 36개 종목에 43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한국은 90개 이상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도, 체조 등 일부 종목에선 북한과의 대결도 피할 수 없다. 이번 대회를 뜨겁게 달굴 화제의 빅매치들을 정리 해봤다.

**마린보이나,
대륙의
별이나
박태환 vs 쑨양**



이미 도하대회와 광저우대회에서 금메달 6개를 획득한 박태환(25·인천시청)은 이번 대회 한국선수

단의 최고스타다. '마린보이'와 '대륙의 별' 쑨양(23·중국)의 대결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최고의 흥행 카드로 꼽힌다. 박태환은 주종목인 자유형 400m 승부에서 최근 4년간 쑨양에 2승1패를 거뒀다.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와 2011상하이세계수영선수권에선 쑨양을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나 2012런던올림픽에선 쑨양에 이어 은메달을 기록했다. 쑨양은 박태환이 불참한 2013세계선수권에서도 자유형 400·800·1500m를 석권했다. 아시아선수 최초의 세계선수권 3관왕이었다. 현재 400m 아시아기록(3분40초14) 역시 쑨양의 몫이다. 둘의 메이저대회 첫 만남은 2008베이징올림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쑨양의 나이는 17세. 쑨양은 자유형 400m에 출전하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성적은 28위에 그쳤다. 반면 박태환은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쑨양은 박태환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았다. 결국 둘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선의의 경쟁자가 됐다. 쑨양은 지구력이 장점이고, 박태환은 탄력과 막판 스피드에서 앞선다는 평이다. 이번 대회에서 둘의 맞대결은 박태환의 이름을 딴 수영장에서 열려 더 관심을 끈다. 박태환은 "라이벌을 의식하기보다는 일단 내 자신의 목표(기록)에 집중하겠다. 하지만 자신은 있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도마의 신이나,
북한의
체조 영웅이나
양학선 vs 리세광**

'도마의 신' 양학선(22·한체대)은 런던올림픽에서 '효자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국민적 영웅이 됐다. 지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꽃피운 그의 성공신화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양학선이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린 대회는 4년 전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였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선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북한의 리세광(29·북한)이다. 북한이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공식선언하면서 둘의 맞대결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리세광은 2006도하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리스트로, 양학선이 등장하기 전까지 아시아 도마의 최강자였다. 둘은 모두 자신의 이름을 딴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양학선은 "리세광과는 국제대회에서 3~4년 만났고 대화도 종종 했다. 지금은 내가 형이라고 부르는 사이다. 하지만 승부에서는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신기술 양학선2를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총황제나,
중일(中日)의
저격수나
진종오 VS
왕지웨이·마쓰다**

진종오(35·KT)는 2004·2008·2012올림픽에서 5개의 메달(금3·은2)을 목에 건 '권총황제'다. 한국 스포츠 역사상 3명뿐인 올림픽 3회 연속 메달리스트이기도 하다. 하지만 유독 아시아경기대회와는 인연이 없었다. 단체전 금메달 기록은 있었지만, 한 번도 개인전에선 정상에 서지 못했다. 그래서 홈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열망은 더 크다. 일단 최근 페이스는 좋다.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맹(ISSF) 월드컵 남자 10m공기권총에서 금메달, 50m권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시아권에서 진종오의 뒤를 쫓는 선수로는 일본의 마쓰다 도모유키(39·일본)와 왕지웨이(26·중국)가 있다. 마쓰다는 7월 현재 50m 권총 세계랭킹 1위, 왕지웨이는 2위다. 하지만 마쓰다는 큰 경기에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왕지웨이 역시 런던올림픽 50m 권총에서 진종오의 큰 벽에 가로막히며 동메달로 밀렸다. 두 선수가 진종오보다 세계랭킹은 높지만, 큰 의미는 없다. 최근 진종오가 국제대회에 많이 참가하지 않아 랭킹 포인트를 얻지 못했을 뿐, 사격계에선 진종오를 세계 최강자로 평가하고 있다.

TICKET

TIP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입장권 예매

기간
현재~10월 4일

수영(수구 제외), 탁구, 체조, 태권도, 레슬링, 승마, 공수도, 사격, 우슈

8월 21일~10월 4일

수영(수구), 야구, 농구, 축구, 핸드볼, 하키, 카바디, 세팍타크로, 배구(배구, 비치발리볼)

문의
아시아경기대회 고객센터(1599-4290) 연결 후 1번 선택
웹사이트(ticket.incheon2014ag.org) 또는
모바일사이트(mticket.incheon2014ag.org)

가격
개회식(10만~100만원), 폐회식(10만~100만원), 일반경기(5천원~10만원)





여름철 발 건강 관리법

발에 흑독한 계절, 한여름 맨발 잔혹사

여름은 어두컴컴한 신발 속에 갇혀 지내던 발이 바깥 구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계절이다. 하지만 겨우 세상 밖으로 나온 발에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여름철 무더위, 습기와 싸워야 하는 발의 고군분투기를 들여보자.



간질간질 가려운 그대 이름은 무좀

덥고 습한 날씨는 사람을 쉽게 지치게 한다. 가뜩이나 땀 나고 더워서 피곤한데 발 끝에서 기분 나쁘게 가려운 느낌이 서서히 올라오면 불쾌지수가 확 올라간다. 무좀은 피부 가장 바깥층인 각질이나 손발톱에 곰팡이가 감염되어 나타나는 질환이다.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기 마련인데, 땀이 증발하지 못해 발에 습기가 차면 살갗이 짓무른다. 그 틈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이 침투해 감염을 일으킨다. 여름철 땀이 많이 나는 발은 무좀이 생기는 최적의 환경이니 무좀균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무좀은 남성질환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최근에는 무좀으로 고생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집계한 백선증(무좀) 환자 수는 여성이 남성의 최대 89%(2008년)에 이른다. 같은 기간 발 백선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남자가 약 40만 명 안팎으로 비슷했다. 여성 발에 무좀을 일으키는 주범으로는 하이힐과 스타킹이 꼽힌다. 여름에 스타킹을 거의 신지 않는다는 걸 고려해도 볼이 좁은 하이힐이나 샌들은 분명 무좀의 원인이다. 발을 꽉 모아주니 발가락 사이가 좁고, 바람이 통하지 않아 습기가 차니 무좀균이 번식하기 쉽다. 장마철 패션으로 인기 있는 레인부츠의 경우에는 더더욱 무좀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다. 덥고 습한 환경에 발 전체가 오래 갇혀 있으니 무좀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무좀은 남성질환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최근에는 무좀으로 고생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집계한 백선증(무좀) 환자 수는 여성이 남성의 최대 89%(2008년)에 이른다. 같은 기간 발 백선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남자가 약 40만 명 안팎으로 비슷했다. 여성 발에 무좀을 일으키는 주범으로는 하이힐과 스타킹이 꼽힌다. 여름에 스타킹을 거의 신지 않는다는 걸 고려해도 볼이 좁은 하이힐이나 샌들은 분명 무좀의 원인이다. 발을 꽉 모아주니 발가락 사이가 좁고, 바람이 통하지 않아 습기가 차니 무좀균이 번식하기 쉽다. 장마철 패션으로 인기 있는 레인부츠의 경우에는 더더욱 무좀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다. 덥고 습한 환경에 발 전체가 오래 갇혀 있으니 무좀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맨발의 청춘이 아니라 맨발의 잔혹사

대부분 더위를 조금이라도 이겨보려는 생각으로 맨발에 신는 샌들을 선택한다. 양말이나 스타킹 속에서 발이 나오니 가볍고 시원해 보이지만 맨발로 신는 신발이 발 냄새나 무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신발이 먼이나 가죽 소재가 아니고서야 발에서 나는 땀 때문에 오히려 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다. 땀 속에서 번식하는 세균이 땀으로 불은 각질을 분해하면서 냄새가 나게 되고, 샌들을 신어서 외부 환경에 노출된 발은 오히려 냄새에 더 취약해진다.

신발이 먼이나 가죽 소재가 아니고서야 발에서 나는 땀 때문에 오히려 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다. 땀 속에서 번식하는 세균이 땀으로 불은 각질을 분해하면서 냄새가 나게 되고, 샌들을 신어서 외부 환경에 노출된 발은 오히려 냄새에 더 취약해진다.

발뿐만이 아니다. 샌들은 발 전체가 아닌 일부만으로 체중을 지탱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발목, 허리에까지 영향을 준다. 밑창이 얇은 신발은 발바닥과 뒤꿈치에 바닥을 디딜 때 충격이 허리까지 전달

된다. 앞 코가 뚫린 오픈토 슈즈는 앞 솔림 현상으로 피로감이 심하고, 오래 신으면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방향으로 휘 수 있다. 심하면 엄지발가락 관절이 돌출되는 무지외반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꼼꼼한 관리만이 살 길

건강하고 예쁜 발을 가지려면 꼼꼼한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외출 전에도 발을 잘 씻고 보송보송하게 말리고, 되도록 양말을 신자. 양말은

땀이 잘 흡수되는 면 양말이 좋다. 단, 양말을 오래 신고 있으면 발에 난 땀을 흡수한 양말이 습기를 머금어 오히려 냄새가 나고 무좀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하루 한번 이상 갈아 신는다. 신발 밑창도 자주 환기, 건조해주는 것이 좋다. 종일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면 통풍 잘 되는 신발로 갈아 신어 발에 열기가 오르지 않게 하자. 귀가하자마자 발을 깨끗이 씻고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물기를 잘 말리자. 하루 10~20분 족욕은 발 냄새 제거뿐 아니라 무좀 예방,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다. 찬물에 발을 담그면 발 온도가 내려가면서 더위로 넓어진 땀구멍이 작아진다.

발 각질이 쌓인 상태로 두면 세균 번식이 쉽고, 발 냄새가 심해지거나 무좀이 생기기도 한다. 묵은 각질을 깨끗이 벗겨낸 후 보습을 해주자. 발을 깨끗이 씻은 다음 물기를 말리고 발 전용 각질제거기인 버퍼로 각질을 슬슬 밀어낸다. 이때 발을 씻으면서 물에 불린 상태로 각질을 제거하면 죽은 세포와 산 세포가 뒤엉켜 떨어져 나오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발바닥에 전용 크림을 듬뿍 바르고, 랩으로 발목까지 감싼 후 크림을 씻어내고 각질을 벗기면 쉽게 떨어진다. 마무리로 소독 성분이 들어 있는 발 전용 크림이나 보습 크림을 바르고,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까지 마사지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피로 해소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샌들을 고를 때에도 발 건강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발바닥을 통해 몸에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하는 폭신한 쿠션이 있는 것을 골라야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건염을 예방할 수 있다. 샌들은 대부분 맨발로 신으므로 발에 나는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천연 소재를 선택하자.

청렴한 독재자,
싱가포르 리관유 전 총리

청렴한 리더십으로 일궜낸 '싱가포르의 기적'



우리나라 수도 서울만한 크기의 작은 나라 싱가포르. 하지만 싱가포르는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넘는 세계적인 부국에 아시아 최대의 금융허브다. 또 매년 국가청렴도 아시아 지역 1위를 차지하는 청렴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싱가포르는 지금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여러 민족이 뒤섞여 폭동 위험이 상존하고 심각한 빈곤과 부패에 고통받는 나라였던 것. 그런 싱가포르를 지금의 모습으로 바꿔놓은 것은 전 총리인 리관유의 업적이다.

부정부패 척결에 국가의 운명을 건 총리 리관유

1960년대 무렵, 싱가포르는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전형적인 제3세계 국가에 불과했다. 식수마저도 이웃나라인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 먹어야 할 정도로 산업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다. 실업률과 인구 증가율, 경기침체 등 국가존망의 위기를 맞고 있던 시기에 당시 총리이던 리관유는 강력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다. 외국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다. 자본가와 노동자 양쪽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사회적 안정을 꾀하고, 아무런 부존자원과 자본이 없는 싱가포르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자본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또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환경보호 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과감하게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국제공항과 항구를 건설, 세계 유명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동남아 물류 중심국, 금융 허브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이었다. 리관유는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당시 개발도상국의 가장 큰 문제였던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반부패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굴복시켜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가지고 1960년 부패방지법을 개정하고 부패행위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CPIB)을 설치했다. 부패행위조사국은 혐의가 있을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모든 재산과 서류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가 된 리관유는 취임 선서식에서 청렴과 정직을 맹세하고 부정부패 방지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가난한 제3세계 국가에서 세계 수준의 선진국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리관유의 정책은 단호했다. 무서울 정도로 엄격한 벌금, 강력한 태형 제도를 시행해 법질서를 바로 잡았다. 미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공공기물을 파손한 미국인 청년(마이클 페이)에게 기어코 곤장 6대를 때린 일화는 유명하다. 잘못을 저지르면 고위층에게도 가차없이 처벌을 가했다.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뇌물을 받은 자는 징역형에 처하고, 부패한 공직자는 징역형과 더불어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측근이었던 테체양 국가개발부 장관이 미화 20만 달러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을 때에도 리관유는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 선처를 호소했을 때 리관유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결국 테체양은 자살로 생을 마감해야 했다. 리관유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매서운 각오 없이 부정부패 척결은 불가능했고,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개혁은 끝이다’라고 말했다.

‘청렴의 상징’으로 꼽히는 리관유도 부정부패 의혹을 받은 적이 있었다. 고급 콘도미니엄 구입 과정에서 분양금의 일정액을 할인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다. 그는 주저 없이 자신을 조사하라고 나섰고, 부패 의혹은 결국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 부패에 있어서 자신의 측근은 물론, 자신에게도 엄격함 그의 태도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고, 리관유는 30년 동안 싱가포르를 이끌며 1990년에야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가 총리가 될 무렵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약 500달러 정도였지만, 그가 은퇴한 1990년에는 1인당 GDP가 1만 2,200달러 정도가 되었고, 1999년에는 그 두 배 가량인 약 2만 2,000달러, 현재 싱가포르의 실질 GDP는 세계 4위에 달하는 수준이 됐다. 싱가포르는 지금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매년 최상위권에 들고, 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한 리관유의 노력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싱가포르에는 놀라운 발전과 부를 가져다 준 것이다.



여름철 위험기상 대처법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기상정보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내리쬐는 햇빛에 점점 뜨거워지는 한여름, 날씨가 더워질수록 건강을 챙기기 쉽지 않은 계절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점점 더 더워지는 것은 물론, 태풍과 집중호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현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자! 폭염 대처법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더위, 바로 폭염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앞당겨 찾아온 더위 탓에 5월 말에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지난 2008년 폭염특보 관측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폭염 추세를 살펴보면 3년간 첫 폭염특보 발표일자는 2011년 6월 20일, 2012년 6월 25일, 2013년 6월 16일로 빨라지고 있다. 폭염특보 일수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 지역은 2011년 폭염특보 발표일이 4일이었던데 비해, 2013년에는 19일로 크게 증가했다. 여름철 평균기온이 높아지면서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고열에 의한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질환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온열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는 열탈진 환자가 가장 많았고, 두통과 오한, 혼수상태를 동반하는 열사병 환자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사망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1년 6명, 2012년 15명, 2013년에는 14명이 무더위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

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서 폭염특보 등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단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최대한 햇볕 노출을 피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물을 자주 마셔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이 있을 때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시도록 한다. 선풍기는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커튼 등으로 햇빛을 가리는 것이 좋다.

또 술이나 카페인 들어있는 음료(커피 등)는 이노작용을 촉진시키니 될 수 있으면 마시지 않는 편이 좋으며 오전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피해야 한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4세 이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갑지 않은 여름 불청객, 태풍 대처법

한여름마다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 태풍은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가져오는 여름의 불청객이다. 특히 올해에는 예년보다 태풍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적도 부근의 엘니뇨 현

상으로 인해 태풍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는 25~26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하여 이중 2~3개가 우리나라에 직·간접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태풍 피해를 미리 막으려면 우선 태풍 정보에 귀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TV나 인터넷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미리 집 주변의 위험물을 파악해 두도록 하자. 바람에 날릴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헛 가구,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창문을 잘 고정시키고 유리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또 하천 근처나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차량을 주차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집 주변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 놓는 것이 좋다.

태풍이 닦쳤을 때에는 바깥 출입을 삼가는 것은 물론, 고압전선을 사용하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근처에는 접근하지 말고, 흙이나 벽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는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또 낙뢰가 떨어질 때에는 건물 안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실내에 있을 때에는 갑작스런 정전을 대비해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미리 준비하고, 가족간 비상 연락방법과 대비방법 등을 미리 논의해두면 좋다.

갑작스레 찾아오는 비의 습격, 집중호우 대처법

굳이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비 때문에 불어난 물로 도로와 건물이 침수되고 붕괴사고가 일어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거기에 전자 제품으로 인한 감전사고, 차량 침수피해, 맨홀 등 지하공간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집중호우 특보가 내리면 먼저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침수구간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안전조치가 취해지기 전엔 하수도, 맨홀이나 지하실에 들어가면 안 된다. 잘 아는 곳이라고 해도 갑자기 물이 불어나 급류가 생겨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침수도로를 차로 지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침수 지역의 깊이는 눈으로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모하게 차를 몰고 들어갈 경우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멈추거나 심하게 망가질 수 있다. 물이 바퀴의 반 이상 잠기면 엔진에 물이 들어가고 장이 날 수 있다. 만약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가 침수됐다면 절대 시동을 켜지 말아야 한다. 집의 침수가 예상된다면 누전차단기를 차단해 전기부터 막아야 한다. 감전 사고를 대비해 침수 지역의 전봇대나 신호등 주변엔 가지 말고, 늘어진 전선은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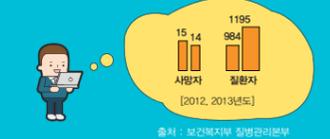
폭염이란?

건강을 해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심한 더위

폭염특보 시 국민행동요령

1. 햇볕 노출 피하기
2. 물 충분히 마시기
3. 외출 자제하기

폭염의 피해



태풍이란?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17m/s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한 열대저기압

태풍특보 시 국민행동요령

1. 가로등, 신호등, 낙뢰시 건물 안으로 대피하기
2. 산사태 위험지역에 가지 않기

태풍의 피해



집중호우란?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

호우특보 시 국민행동요령

1. 하수도, 맨홀에 접근하지 않기
2. 침수도로구간에서 운전하지 않기
3.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확인하기

호우의 피해



News & People

2014. 7+8

국내 첫 청렴교육 전문기관 '청렴연수원' 숙소동 '청백사' 준공



지난 7월 23일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소재 청렴연수원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소동인 '청백사'의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한 '청백사'는 지난 2012년 10월 개원한 청렴연수원의 연수원생 숙소용 건물로 활용되며, 연면적 2,25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완공됐다. 총 70명을 수용

할 수 있는 객실 40실과 구내식당, 정보화실 등 연수원에서 청렴교육을 받는 공직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청백사(淸白舍)'는 공직자의 '청렴결백'의 정신을 함양하는 장소라는 의미이다. 국내 첫 청렴교육 전문훈련기관으로 출범한 청렴연수원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주로 하고 있으며, 사이버를 통한 청렴교육과 청렴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드라마 등 청렴콘텐츠를 개발해 알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권익위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규제 개선 업무협약 체결



지난 7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이 기업활동 과정에서 겪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 해소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애로사항 및 제도의 발굴과 대안책 마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중소기업 권익구제 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 협력추진 등이다. 권익위는 지난 2009년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충민원을 별도 관리하여 처리하는 '기업움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도입 이후 2013년까지 총 1,365건의 기업고충민원을 처리하였고 그중 약 21%에 해당하는 288건을 해결했다.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인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공익신고 보상금 2억 5백여만 원 지급

올해 상반기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신고로 인한 수입(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발생했던 332건의 신고사건에 대해 신고자들에게 총 2억 5백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전체 보상금 2억 2,700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이고, 전년 동기 7,200만원보다 3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한편, 권익위는 식당영업주가 행정기관에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 중 3월 11일 이후에 들어온 신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행복제안센터의 정책반영사례를 담은 '국민행복 제안 스토리북' 발간



정부대표 소통창구 '국민행복제안센터'의 우수 사례를 담은 이야기책이 발간됐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착안한 행정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지난 1년간 실제 정책에 반영된 22개의 대표 제안사례를 수록하였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극화 형식의 이야기체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국민행복제안 스토리북'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전자책(eBook)으로 볼 수 있으며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집단갈등의 진단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 토론회 개최

지난 6월 24일 권익위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갈등학회,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집단갈등의 진단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해 점차 확대되는 갈등 조정 역할과 조정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권익위는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권익위의 중립적 조정역할 확대 방안', '집단민원 및 사회적 갈등 실태와 증가원인', '집단민원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문제점 분석' 등 세부 주제들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권익위는 지난 7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권익위 대강당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제도의 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 18개 기관, 지방자치단체 31개 기관, 교육자치단체 13개 기관, 공직유관단체 96개 기관 등 총 158개 기관 실무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이번 워크숍과 행정개혁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일선 기관에서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Quiz

아래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초성퀴즈의 힌트는 책 속에 숨어 있습니다. 힌트 단어가 숨어있는 페이지를 찾아보고, 힌트 단어의 **굵게 표시된** 글자를 모아 초성퀴즈를 맞춰보세요!

○ㅂㅈㄷ

Hint

- 4P 제목 두번째 줄 '○ㅂㅈㄷ'
- 19P 작은 제목 'ㅂㅈㅈㄷ'
- 3P 마지막 줄 'ㄷㅈ'
- 28P 제목 마지막 줄 'ㄷㄷ'

Review

<p>김현수 (서울시 중랑구)</p> <p>‘치유의 숲을 찾아서’가 가장 좋았어요. 휴식 같은 기사 한편 잘 봤습니다! 국민들이 몰라서 권리를 못 찾는 일이 많은데요, 국민들이 알기 쉽게 여러가지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p>	<p>장희지 (대구시 북구)</p> <p>‘그에겐 없는 안전띠’가 기억에 남아요. 장애인의 신체조건에 따라 권익이 보호되는 사례를 보며,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사정에 맞게 규정들이 적용되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p>	<p>이용현 (순천시 서면)</p> <p>〈청렴 오디세이〉의 피오렐로 라과디아 뉴욕 시장의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80년 전의 뉴욕에서 청렴을 행동으로 보여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그와 같은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p>	<p>최영숙 (부산시 서구)</p> <p>고려인을 위한 한글교실 기사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민족이 우리나라에서 함께 사는 만큼 한글교실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p>	<p>송지수 (서울시 노원구)</p> <p>테마스토리 기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종합민원센터를 보면서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우산이 되어 주고 있는 권익위의 오늘을 볼 수 있었네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주고 있는 권익위에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p>
--	--	--	---	---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의견과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다섯 분을 추첨해 전통시 장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응모마감은 8월 29일(금)입니다.

지난호 정답

‘고충민원’ ‘국충민원’ 모두 정답으로 합니다. 편집 상의 실수로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난호 당첨자

김현수 (서울시 중랑구), 장희지 (대구시 북구), 이용현 (순천시 서면), 최영숙 (부산시 서구), 송지수 (서울시 노원구)



7월, 기초연금이 시작됐습니다

기초연금은 상생연금입니다. 더 필요한 어르신들을 배려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제도 안내	시행시기 2014년 7월 1일 (첫 지급일 : 7월 25일)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종료됨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
	지급액 월 최대 20만 원 단독가구 2~20만원, 부부가구 4~32만원 수급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국민연금콜센터 (☎1355), 읍·면·동 주민센터

시행 안내	주소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에 신청해주세요.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도 가능 ※ 온라인 신청은 7월 7일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서도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 기초연금 신청 불필요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은 7.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이미 만 65세가 되신 분들은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필요 없음
	기초연금 신청(접수)비용이 있나요?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